

# 배드민턴 최강 안세영, ‘11 우승’ 역대 최다승 금자탑

2025 월드투어 파이널 결승 왕중왕전서 중국 왕즈이 2대 1 제압  
‘여성 최초’ 시즌 11승 달성…명실상부 ‘셔틀콕 여왕’ 자리매김  
‘11차례 정상’ 일본 남자 단식 모모타 겐토에 이어 두번째 대기록

안세영은 거침이 없다. 마치 브레이크 풀린 듯 승리 앞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형국이다. 딱히 그를 세울만한 어느 누구 한 사람 없는 듯하다. 이제 그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만큼 승리라는 가속페달 밟으며 나아가는 것인가가 문제가 아닐듯 싶다.

배드민턴 ‘세계 최강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중국 항저우의 올림픽스포츠헤터에서 매일 승전보를 작성한 끝에 올해 마지막 대회인 왕중왕전을 제패하고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이라는 금자탑을 작성했다. 안세영은 21일 중국 항저우의 올림픽스포츠헤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중국·세계랭킹 2위)를 2-1(21-13 18-21 21-10)로 물리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시즌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

어 올리며 남녀 통합 한 시즌 최다 우승 타이 기록을 세웠다.

세계 배드민턴 역사상 한 시즌에 11차례 정상에 오른 선수는 2019년 일본 남자 단식 선수 모모타 겐토에 이어 안세영이 두 번째다.

안세영은 ‘왕중왕전’ 격인 월드투어 파이널스를 비롯해 3개의 슈퍼 1000 시리즈(말레이시아오픈·전영오픈·인도네시아오픈), 6개의 슈퍼 750 시리즈(인도오픈·일본오픈·중국오픈·덴마크오픈·프랑스오픈·호주오픈)와 슈퍼 300 대회 오프레앙 마스터스에서 정상을 밟았다.

올 시즌 안세영의 우승 행보는 압도적이었다. 슈퍼 1000 시리즈 3개(말레이시아오픈·전영오픈·인도네시아오픈), 슈퍼 750 시리즈 6개(인도오픈·일본오픈·중국오픈·덴마크오픈·프랑스오픈·호주오픈), 슈퍼 300 대회 오프레앙 마스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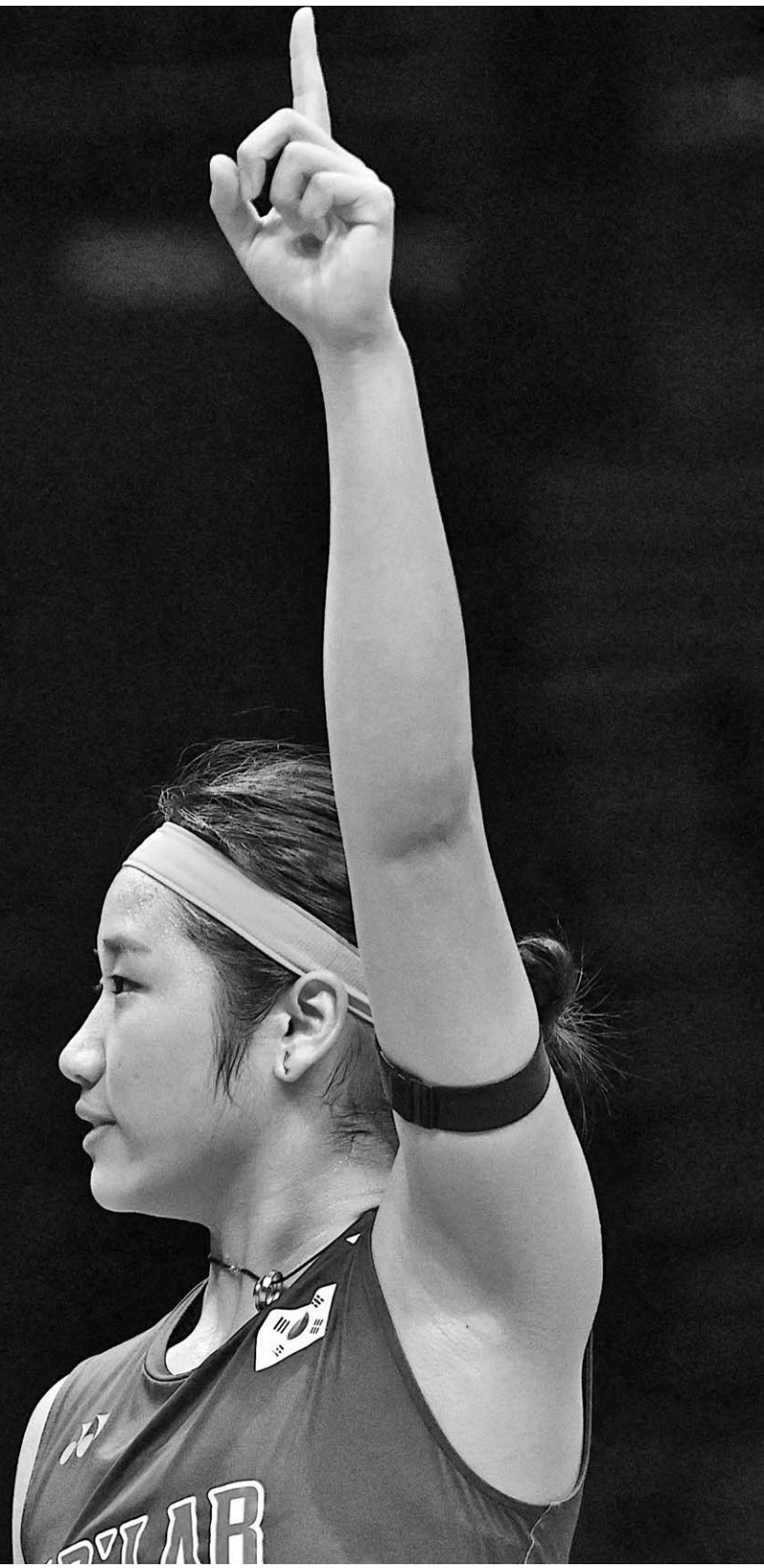
까지 총 10개의 트로피를 차지하며 여자 배드민턴 최강자의 위상을 다시 한 번 굳혔다.

이번 월드투어 파이널스에서 정상에 올라 최다 11승 대기록과 이어 단일 시즌 최고 승률을 달성했다.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인도네시아의 푸트리 쿠수마 와르다니(세계랭킹 7위)를 2-1(21-16 8-21 21-8)로 제압한데 이어 안세영은 20일 중국 항저우의 올림픽스포츠헤터에서 열린 ‘왕중왕전’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아미구치 아카네(일본)를 38분 만에 2-0(21-15 21-12)으로 완파해 결승에 진출,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 기록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이로써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 여자 단식 우승을 확정지은 안세영은 11번째 우승을 달성한 안세영은 ‘왕중왕전’ 격인 월드투어 파이널스를 비롯해 3개의 슈퍼 1000 시리즈(말레이시아오픈·전영오픈·인도네시아오픈), 6개의 슈퍼 750 시리즈(인도오픈·일본오픈·중국오픈·덴마크오픈·프랑스오픈·호주오픈)와 슈퍼 300 대회 오프레앙 마스터스에서 정상을 밟은 주인공이 됐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KBO 내년 시즌 발빠른 행보…KIA 인천서 시즌 돌입

팀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3월 28일 대장정

야구대표팀 콜라보 상품 2차 수량 출시도 관심

KIA 개막전 경기는 광주가 아니라 인천에서 열린다.

KBO가 시리즈 개막 전 스토브리브가 마무리된 가운데 내년 시즌을 향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내년 시즌 경기 일정에 이어 야구대표팀 콜라보 상품 면모가 드러났고, 유능한 인재 발굴에도 나섰다.

먼저 KBO는 지난 19일 2026 KBO 정규시즌 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2026 KBO 정규시즌은 팀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를 치르며, 3월 28일에 개막한다.

개막전은 2025 시즌 최종 팀 순위 상위 5개팀의 홈 경기로 편성돼 잠실(KT-LG), 대전(키움-한화), 문학(KIA-SSG), 대구(롯데-삼성), 창원(두산-NC) 구장에서 2연전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어린이날 경기는 격년제 편성 원칙에 따라 잠실(두산-LG), 문학(NC-SSG), 수원(롯데-KT), 광주(한화-KIA), 대구(키움-삼성) 구장에서 열린다.

KBO 올스타전은 7월 11일 개최 예정이다. 올스타전 휴식 기간은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이며, 정규시즌 후반기는 7월 16일부터 4연전으로 시작된다.

또 개막 2연전과 올스타전 휴식기 직후의 4연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가 3연전으로 편성돼, 9월 6일까지 팀당 135경기나 우선 편성됐다.

미편성된 45경기(팀당 9경기)는 우선 등으로 취소되는 경기와 함께 추후 편성될 예정이다.

팀간 이동거리 및 마케팅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격년제로 홈 73경기-원정 71경기를 편성하는 원칙에 따라 LG, 삼성, NC, KIA, 키움의 홈 73경기-원정 71경기로 편성됐다.

아울러 KBO는 야구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선보였던 야구대표팀 콜라보 상품의 2차 수량을 출시한다.

이번 콜라보 상품은 ‘2025 NAVER K-BASEBALL SERIES’를 기념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전문문화와 스포츠의 결합을 통해 대한

민국의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기획됐다.

상품디자인에는 조선 후기 민화 ‘호작도’(虎鵲圖)에서 영감을 받은 ‘크레오나 까치호랑이 캐릭터 범둥이’가 사용됐으며, 나뭇 가운을 물리치는 호랑이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까치의 상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냈다.

‘크레오나 까치호랑이 캐릭터 범둥이’는 ‘경주 2025 APEC 정상회의’ 웰컴카드와 두바이에서 개최된 ‘K-EXPO UAE 2025’에서 6m 높이 에어 조형물로 제작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P로 발돋움하고 있다.

2차 출시 상품은 레플리카 유니폼, 마킹키트, 모자, 티셔츠, 짐백, 부채, 기념구, 응원배트, 응원타올 등 총 9종으로, 1차 출시 시 포함됐던 키링은 제외되며, 22일 오전 11시부터 KBO 마켓, 프로스펙스 온라인 스토어 및 오프라인 직영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외에 KBO와 KBOP(KBO마케팅 자회사)가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 KBO는 인사·교육을 비롯해 홍보, 국제, 법무, 대외협력, 육성, 운영 등 총 7개 직무 분야에 걸쳐 인력을 선발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BO가 시리즈 개막 전 스토브리브가 마무리된 가운데 내년 시즌을 향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내년 시즌 경기 일정에 이어 야구대표팀 콜라보 상품 면모가 드러났고, 유능한 인재 발굴에도 나섰다. 사진은 지난 9월 KIA타이거즈 선수들이 경기가 끝난 후 서로 격려하는 모습. 사진제공=KIA 타이거즈

## 이정호 감독, 광주 떠난다…차기 사령탑은?

광주FC, 이 감독과 계약해지…새 감독 선임작업 착수

이정호 “새로운 도전 선택…더 넓은 무대에서 부딪치겠다”

‘정호매직’ 이정호 광주FC 감독(50·사진)이 결국 4년 만에 광주를 떠난다.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이정호(50) 감독과 4년간의 동행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광주FC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호 감독의 중도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상호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이어 “이 감독이 지난 12일 구단에 계약 해지를 공식 요청했고, 구단은 법률과 내부 검토를 거쳐 감독 본인의 확고한 의사와 계약상 절차를 존중해 이를 수용해 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광주 사령탑을 맡은 이 감독은 팀을 3년 연속 K리그1에 잔류시키고, 코리아컵 준우승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 진출 등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내며 광주FC를 무너지지 않는 강팀의 이미지를 심어줬다.

광주FC는 이 감독과 결별을 결정하면서 곧바로 차기 사령탑 선임에 돌입했다.

구단은 재정 여건과 시민구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존의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축구 철학을 계승하거나 이를 보완해 성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구단은 국내의 후보군을 압축한 뒤 구단주 보고와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선임할 계획이다.

이정호 감독은 구단을 통해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이정호 감독은 “광주에서의 4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고, 가장 뜨거웠으며, 무엇보다 가장 사람 냄새가 나는 시간이었다”며 “광주는 제게 단순한 팀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법, 원칙을 지키는 법, 그리고 버티내는 법을 가르쳐준 곳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려고 한다. 이번 결정은 광주가 시민구단으로 두어 없어서 또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다”라며 “더 넓은 무대에서 부딪치고, 증명함으로써 한국 축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꿈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감독은 “광주를 떠나지만, 광주에서 배운 축구와 사람에 대한 믿음은 앞으로의 제 모든 선택 속에 함께할 것”이라며 “광주의 감독이었다는 것을 평생 감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김혜성, 월드시리즈 우승 상금 7억

‘월드시리즈 우승 멤버’ 김혜성(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우승 보너스로 48만4748달러(약 7억1500만원)를 받는다.

AP통신은 19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이 올해 미국프로야구 MLB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다저스에 포스트시즌 상금 4610만달러를 배분했다”고 전했다.

6월 1일 이후 다저스 현역 로스터(26명)에 포함되거나 부상자 명단에 오른 선수와 코치진은 48만4748달러를 받는다.

이 기간에 현역 로스터에서 제외된 선수는 상금의 일부를 받는다.



올해 미국에 진출한 김혜성은 5월 4일 버리그에 데뷔했다.

부상자 명단에 오른 적이 있고 경기 출장 기회를 자주 얻지 못했지만, 월드시리즈 로스터에 들며 시즌 끝까지 다저스 동료들과 그라운드를 지켰다.

우승 멤버인 김혜성은 보너스 전액을 받는다.

올해 MLB 포스트시즌 총상금은 1억2820만달러로, 역대 최고였던 2024년의 1억2910만달러보다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다저스 우승 멤버가 받은 보너스는 올해보다 낮은 47만7441만달러였다.

연합뉴스